전력중개서비스란?

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의 정의

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모집한 전력중개사업자가
"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"에 따라 전력거래소에
시간대별 예측발전량을 제출하여 **예측오차율에 따라**
정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

발전사업자측면의 기대효과

기존수익(SMP, REC) **+ 추가수익(전력중개 예측정산금)**

전력중개 예측정산금? 태양광 발전소의 다음날 발전량을
예측하고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 수익 발생



모집내용

중개사업자로서 한난의 역량

- 최신 기술력을 갖춘 **태양광 발전량 예측프로그램*** 탑재한 VPP 운영센터 구축
  * ’21년 한국전력공사 주관 ‘전력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최우수상’ 수상
- 공공기관으로써, 타 중개사업자 대비 재무구조 및 신뢰성 우수

구분	내용
모집대상	태양광 발전사업자
계약기간	1 ~ 3년(협의)
혜택	계량기 무상 교체 (한전PPA계약자 대상, 400만원 상당)
	RTU 모니터링 장비(통신장비, 케이블 등) 무상 설치(필요 시)
예상 추가 수익*	약 480만원/1년(정산금 배분 협의)

*** 설비용량 1MW, 시간대별 예측오차율을 6%이내 가정**



“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” 소개

대상자원

- 20MW 초과 개별 발전기 및 **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예측형 집합자원**
- 태양광, 풍력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설비

(기타 재생에너지인 바이오, 소수력은 집합자원으로 구성 가능하지만 정산금 대상 아님)

참여조건

- 등록시험을 통과한 개별발전기 및 집합자원
- 등록시험 통과 요건: 1개월 평균 예측오차* 10% 이내

(* 태양광, 풍력 이용률 10% 미만 시 오차율 산정에서 제외)

오차율 산정방법

- $\text{오차율} = \frac{|\text{발전량} - \text{예측량}|}{\text{설비용량}} \times 100$

설비용량 기준

- 설비용량 포함: 태양광, 풍력 설비
- 설비용량 제외: 바이오, 소수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설비, 태양광, 풍력 이용률 10% 미만의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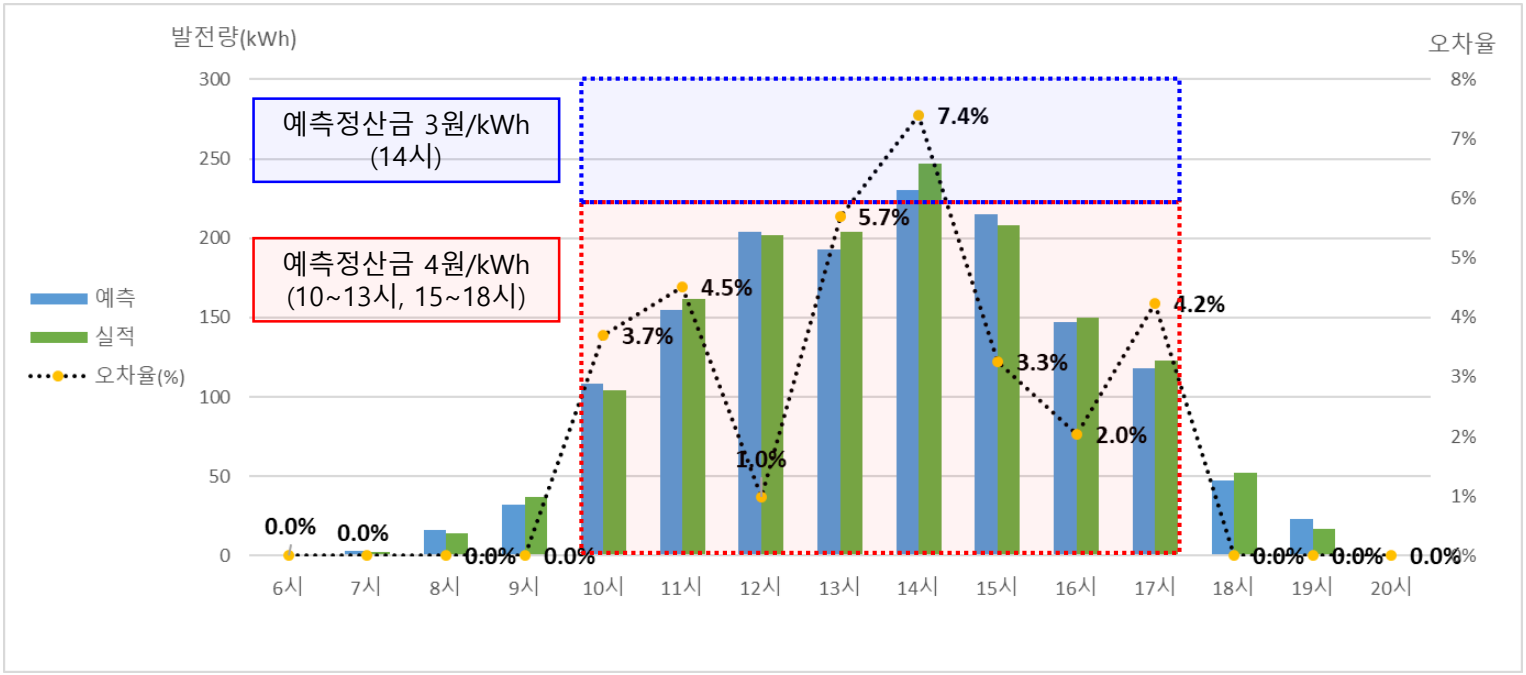
정산금 기준

- 지급기준 : 이용률 10% 이상이며, 예측오차율 8% 이하
- 정산금 수준 : 8%이하(3원/kWh), 6%이하(4원/kWh)

참여제한

- 참여자원의 3개월간 평균 오차율 10% 초과 시, 대상자원에서 제외
- 재 참여를 위해 1개월 간 재 등록시험 필요

예측제도 정산금 예시



설비용량 (kW)	총 발전시간 (시간/일)	총 발전량 (kWh/월)	자원보유자 예측정산금
1,000	3.6 ('21년 태양광 평균)	108,000 (1개월 = 30일 기준)	총 발전량 정산금의 ½ (계약에 따라 비율 변동 가능)

월간 예상 정산금 (원)	연간 예상 정산금 (원)	비고
216,000	2,592,000	총 발전시간 3.6시간/일, 예측오차율 6% 이내(4원/kWh) 기준 (총 발전시간과 예측오차율에 따라 실제 정산금 변동)